

사랑, 노여움 그리고 효도

“

흐르는 물에 떠내어 버린 듯, 많은 사람들로 부터 은혜를 입었던 일은 잊고, 사랑을 받았던 기억은 잊은 듯 경언(鯁言) 망동(妄動)을 할 때, 말 할 수 없는 실망감과 상처를 받게 된다. 쌓여지는 섭섭함은 노여움으로 바뀌고, 미움(원한)은 돌에 새긴 듯이 잊혀지지 않는다.

”



한국화약발파공학회 고문 김 응 수
011-9737-8449 288449@hanmail.net

우리의 주변에 이런 저런 친구가 많다. 이는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하게 만들어 준으로 큰 부자가 된 느낌이 든다. 정말 값진 보화를 얻은 것과도 같다.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이해하고 마음을 다하여 베풀고, 지긋한 교제로 사귀어 나눈다. 그 친구가 살아 온 인생 깊이를 알 수 있다. 또한 그 친구의 친구까지도 폭넓게 사귀는 것을 보면, 지인(知人)을 대하는 성실한 성품과 애정에 존경과 부러움을 금치 못한다.

이렇듯 많은 지인(知人)을 갖게 되면, 사교(社交) 범위는 점점 넓어진다. 그런데 자연 발생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주관적으로 친구들을 평가 할 때가 있다. 똑똑 한 사람, 착한 사람, 고마운 사람, 믿음직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이들은 자주 보고싶고 만나고 싶은 반면, 욕심 많은 사람,

잘난 척 하는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안 만나고 싶은 사람 등으로 매김을 하게된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이 상식이하의 언행을 자행할 때, 서운한 마음이 든다. 게다가 서운한 일들이 쌓여지면 결국 우정이나 사랑이 노여움으로 변한다. 흐르는 물에 떠내어 버린 듯, 많은 사람들로 부터 은혜를 입었던 일은 잊고, 사랑을 받았던 기억은 잊은 듯 경언(鯁言) 망동(妄動)을 할 때, 말 할 수 없는 실망감과 상처를 받게 된다. 쌓여지는 섭섭함은 노여움으로 바뀌고, 미움(원한)은 돌에 새긴 듯이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의 주변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통탄하면서 가슴아파 하기도 한다.

우리의 미숙한 감정이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표 / 준 / 논 / 단

을 만들고, 건전하지 못한 마음을 만들고, 나아가 불안한 행동으로 과격한 언행으로 표현하게 된다고 한다

평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심사숙고하여 습관 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디용은 흐르는 물에 던져 버려라"라는 옛 말이 있듯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나 은혜는 돌에 새겨서 오래도록 잊지 말고 보답해야 하고, 노여움은 흐르는 물에 던져 버리고 바로 잊어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의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있다. 비록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용서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교단과 자만으로 남을 무시하면서 생활하던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자기의 허물과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회개(悔改) 하고 "익은 벼이삭"이 고개 숙이듯이, 부끄러운 행동을 자행했던 자기 자신을 우선 용서하고 스스로 바른 길을 걸어 갈 것이다.

연어새끼는 큰 강물에 방생하면 큰 바다로 나가고 먼 나라 바다까지 가서 살다가 커지고, 산란기(産卵期)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회기(回期) 하여 돌아와서 한 배 가득한 알을 강에 낳고, 거기서 죽어버림으로서 연어의 일생을 마친다고 한다.

독수리는 강가의 높은 절벽바위 갈라진 곳에 집을 짓고 살다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조금 날게 되면 어미가 사정없이 그 높은 절벽바위 위에서 강위로 내던져버린다고 한다. 그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죽을힘을 다하여 강물 바깥 흙 밭에 기어올라오고, 그렇게 살아남은 것만 어미가 와서 물어다가

집으로 데려오고, 그 다음 날 또 다시 절벽 위에서 내던져버리는 일을 반복하며, 새끼들이 제 혼자 힘으로 강물에서 먹이를 잡아먹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새끼들에게 어미에 대한 의존심을 없애고 독립심과 자신감을 길러 준다는 것이다.

우리가 해조(害鳥)로 잘못 알고 있는 까마귀는 어떤 동물이나 조류(鳥類)도 하지 못하는, 효도(孝道)를 하는 새(鳥)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새들은 어미가 새끼를 낳게 되면, 어미는 새끼를 위하여 열심히 먹이를 얻어다 먹이는 데, 까마귀는 새끼가 어느 정도 커지면, 새끼가 오히려 먹이를 얻어다가 어미에게 드린다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대자연에서 같이 살고있는 조류(鳥類)나 어류(魚類)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은, 연어의 경우 새끼(알)를 낳기 위하여 수 천리나 되는 큰 바다를 건너 고향 하천까지 찾아와서 새끼를 낳고 죽어버리는 연어의 일생이 있는가 하면, 기암 절벽 높은 꼭대기에서 절벽 밑 하천 위에 새끼를 내어 던져 떨어뜨리면서 훈련시켜 키우는 독수리의 지혜가 있고, 까마귀는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오히려 공급하는 효심(孝心)을 볼 수 있다.

요즘 우리사회에서 보면 카지노에서 경마장에서 또는 노름판에서 하루 밤에 수 백 수천만 원의 노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과 약물 중독이 되고, 향락을 일삼는 사람들은 연어의 일생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배워야 하겠다.

자식의 고액 과외비가 없어서 부부 싸움 끝에 이혼을 하는 가정에서는 독수리의 지혜를 배우야 하겠고, 밤 유흥장에 나갈 용돈을 안 준다고 칼로 아버지를 위협하는 자녀들은 까마귀의 효심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표준**